

화성서 여아 폭행살해

20대범인 검거 연쇄살인 관련 조사

90.4.1

【화성=배경록 기자】경기도 화성경찰서는 31일 6살짜리 여자어린이를 납치,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강남(29·화성군 태안읍 반월2리 360)씨를 붙잡아 화성부녀자 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0일 낮 12시께 혼자 집을 보고 있던 이웃집의 정아무개(6)양을 납치, 부근 콩나물공장인 강남식품 작업장 안으로 끌고가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정양을 살해한 뒤

사체를 비닐 찰포대에 담아 마을 부근 농수로에 흙으로 덮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정양은 31일 낮 12시3분께 아버지 정일호(46·반월2리 360)씨 등 가족이 마을을 수색한 끝에 찾아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는 마을이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일대와 불과 약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수법이 연쇄살인사건과 흡사한 점을 중시, 관련여부를 캐고 있다.

중 90.8.27

피서간 처녀 인신매매

5명을 유인·감금...성폭행후

대학생인 4명 영상

했다.

서울시경 특수대는 27일 해수욕장 뒷길거리에서 18세 22세의 처녀 5명을 유인, 성폭행후 여관등에 팔아넘겨 유인매매를 한 혐의로 徐漢錫(21·B大 경제1) 등 20대 2명을 붙잡아 미성년자 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월초 서울清涼里 담보스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여자를 사들여 여관방에 감금시켜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유희농담, 대성악관 주인崔福順씨(39·여)와崔英子씨(42·여) 등 2명을 유인매매, 방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네친구사이인 徐씨들은 2백80만원을 받고崔씨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이 밝혀졌다.

[4판]

1990년 8월 26일[일요일] [15]

택시기사 웃돈 거절 임신부 성폭행

“치사한 사람” 편잔듣고 야산 데려가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미터요금 이상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다 임신 4개월의 여자승객이 이를 거부하자 야산으로 끌고가 강제로 폭행한 뒤 현금 12만원을 빼앗은 택시 운전사 한철구(32·노원구 월계동 380-1)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께 중구 을지로1가 두산빌딩 앞에서 이아무개(2

8·여·회사원)씨를 태우고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에 도착, “차가 밀려 시간이 걸렸으니 돈을 더 내라”며 미터요금 1천7백50원 외에 1천원을 더 요구하다 이씨에 의해 “치사한 사람”이라며 거절당했다. 한씨는 이에 격분, 차를 과속으로 몰아 이씨를 서초구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부근 야산으로 끌고가 “임신 4개월이니 폭행만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이씨를 차안에서 강제로

폭행하고 손가방 안에 든 현금 12만원까지 빼앗은 뒤 이씨를 다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 내려놓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한씨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차적조회를 통해 추적해온 경찰에 의해 25일 오전 4시께 도봉구 창동 자신의 소속회사 부근 카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붙잡혔다.